광주시 3D 한미합작사업 순항할까

현지실사 기술력·물량 확인…이달말 기술테스트 통과가 관건

광주시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3D 컨버팅(변환) 분야 한미합작투자사업'을 이달 중 기술테스트를 거친 뒤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한미합작투자법인 '갬코'의 부실투자와 기술력 검증 미흡 등을 지적받은데다 기술테스트가 남아있어 사업 추진과 성공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노희용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합작투자법인의 미국측 파트너인 K2AM과 관계 회사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3D컨버팅 분야의 기술력과 콘텐츠 물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현지실사를 벌인뒤 지난 3일 귀국한 노 실장은 이날 "워크스테이션 및 네트워크 디자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터널 포스트'사의 경우 HD 변환 기술과 3D 컨버팅에 적합한 최신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확인했고 '픽셀 드럼'사도 3D 컨버팅 전문가들이 소프트웨어를 융합해 자동화율을 높일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LA 현지에서 이달 말 내에 실시될 기술테스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또 물량 및 마케팅 파트너인 프리스 필름과 벙갈로 등을 방문해 물량 배급 준비상황을 확인했으며, 법률 고문변호사 측과도 150편 물량계약의 세부내용과 극장용 영화 1편을 받기 위한 보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조사단과 K2 관계자는 이달 중 미국 LA 현지에서 기술테스트를 거쳐 성능검사를 통과할 경우 오는 8월 중 3D컨버팅 시스템을 광주 CGI센터에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테스트의 통과 수준은 워크스테이션 100대의 3D컨버팅 기술력이 기존 속도에 비해 10배 이상 빨라지는지 여부다.

기존 기술력으로는 영화 한 편을 3D로 변환하는데 한 달 동안 70여 명이 투입되지만, 이를 한 달 동안 7명이 작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노 실장은 "그동안 우려와 달리 K2AM사의 기술과 물량제공 능력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LA 기술테스트를 거쳐 8월 중 광주 CGI센터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최종 계약이 충실히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당초 계약이행 시점이었던 6월말에서 2개월여 미뤄진 것으로, 기술테스트 결과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기술테스트 성능검사가 수준 이하일 경우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감사원은 한미합작투자법인 '갬코'에 대한 감사 결과 650만 달러(72억원)를 잘못 송금한데다 원천기술력 검증이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어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 실장은 "기술테스트가 성공을 못하면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 2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고을노인타운, 여가활동에 큰 도움"

회원 10명중 8명 긍정 평가…80% "나이보다 젊다"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이용자들의 여가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이용자의 80% 이상이 심리적 나이보다 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빛고을노인복지재단에 따르면 개원 3주년을 맞아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노인타운 회원 824명으로 대상으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이용 회원의 노후생활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여가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 중 자신의 심리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2~3살(34.5%), 3~5살(27.4%), 5~8살(12.7%) 가량 젊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8명은 자신의 나이보다 젊다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건강유지가 42.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여가활동 36.8% ▲배움의 기회 15.9% ▲교우관계 1.9% 등의 순이었다.

특히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여가활용에 도움이 된다는 어르신은 전체 응답자의 84.3%를 차지했으며, ▲건강 유지(80.6%) ▲배움(73.9%) ▲교우관계(64%) 등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이용하는 횟수는 전체 응답자의 64%가 주 3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을 지칭하는 말로 선호하는 호칭은 60대의 경우 시니어(47.2%), 70대 실버(37%), 80대는 노인(63.8%)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40.8%는 2년 이상 노인타운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노인타운의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신뢰도 95%에 오차범위 ±3.5%포인트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5월 단체 "강창희 의원 국회의장 후보 선출 철회해야"

5·18 관련 단체들이 강창희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5·18기념재단과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구속부상자회 등 관련 단체들은 4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이 지난 1일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하나회 출신 강창희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것은 역사정의를 거스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장 후보인 강창희 의원은 12·12 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을 피로 진압한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불법적인 군대 내 조직인 하나회 출신으로, 2009년 발간된 그의 자서전에서 하나회를 어느 조직이나 존재하는 리딩그룹으로 표현해 군사반란·내란·내란목적 살인 등 범죄의 핵심조직임을 은폐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강창희 내정자가 전두환과 '의리'로 맺어진 관계임을 강조하고, '신군부의 막내'로서 정치인을 선택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역사적인 인식의 한계를 드러냈었다"면서 "특히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는 과거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는커녕 자신의 정치인생을 자부한다고 말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강 의원에게 '1980년 광주시민의 민주화 요구를 피로 짓밟고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등 신군부의 반역사적 행위에 참여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지' '신군부 핵심 92명이 군사반란과 내란목적 살인으로 사법처리된 사실을 망각한 것은 과연 국가관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지' 등을 공개 질의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F1 자원봉사자 경쟁률 2.6대 1

올해 열리는 'F1(10월 12~14일) 코리아그랑프리' 자원봉사자 모집에 전국에서 1676명의 지원자가 몰려 2.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F1 조직위원회는 4일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40일 동안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결과 선발 인원 629명에 1676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원자 중 최고령자는 일본어 통역가 박정화(86)씨로 지난 2010년, 2011년 F1 대회 참가에 이어 올해 3년 연속 자원봉사자로 참가 신청을 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54명과 해외대학 졸업자 19명도 통역분야에 신청을 했고, 전국 소재 대학교와 현대삼호중공업·기아자동차·대한조선·포스코 등의 학교 및 기업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호남대 영어영문과에서 교수·학생들이 단체로 자원봉사 신청을 해 눈길을 끌었다. /오광록기자 kroh@

이곳에서 선배들이…

천안함 46용사의 모교에서 추천받은 후배 고교생들이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간 '함상 체험'에 나섰다. 해군본부가 주관하고 천안함재단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29개교 43명이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이 본격적인 해상작전체험에 앞서 천안함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청년유니온 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을 둘러싸고 고용노동부와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광주 청년유니온이 4일 광주시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광주 청년유니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광주시에 제출하고 법 내 노동조합으로 첫 출발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3월 서울에 이어 이달 중 광주와 대전·인천·충북지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2010년부터 4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직자의 노동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반려된 상태다.

이에 따라 청년유니온은 지역별로 법내 노동조합을 설립해 법적 교섭력을 확보키로 하고 지난 4월 광주 청년유니온 창립총회를 가졌다.

광주시는 "이미 서울시가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한 만큼 관계 법령을 충분히 검토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뇌물수수 혐의 신재민 징역 3년6월 선고

이국철 회장도 실형

SLS그룹 구명 로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4일 신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400만원, 추징금 1억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임 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상생협력자금 편취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1100억원대의 선박건조 자금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개인택시운전자 전세버스 운행 불허

국토해양부는 개인택시운전자가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없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선명령은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 운전자가 부족해 개인택시운전자가 임시로 운행하면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데 따른 것이다.

개선명령을 어기면 개인택시와 전세버스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회생기업 ㈜한국닉스 M&A공고

Ⅰ. 개 요
① 매각 방식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등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일괄매각
② 입찰 방법 : 공개경쟁입찰

Ⅱ. M&A진행절차
① 인수의향서 등 접수
-접수시한 : 2012년 6월 22일(금) 오후 5시(대한민국표준시)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번지 한국투자증권 8층 삼일회계법인
-제출서류 : 인수의향서 및 비밀보장확약서를 포함한 부속서류 (이하 "인수의향서 등")
-제출안내서, 인수의향서 등 양식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거나 요청시 E-mail로 송부예정
-인수의향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예비실사 참가자격을 개별통지
② 향후 진행절차
-인수의향서 접수 및 사전심사 → 예비실사 → 입찰서류 접수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본계약 체결 → 정산실사 → 정산완료 및 거래종결
③ 기타
-본 기업매각 공고에 따른 인수의향서의 제출 요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청약의 권유가 아니며, 청약의 권유는 향후 인수의향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입찰적격자에게만 이루어짐.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입찰 과정에 참가하는 자는 본건 진행절차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인수의향서, 입찰서류 등 본 건과 관련한 모든 서류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함(우편, 팩스, 전자메일 접수는 불가).
-접수된 입찰 서류는 취소, 철회, 회수,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본 건의 진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삼일회계법인 ㈜한국닉스 M&A 추진팀(Tel : 062-239-31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5일

회생기업 ㈜한국닉스 관리인 박석 곤

함평다이너스티CC

신입 및 경력사원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 웨이터, 웨이츄레스, 주부사원(신입 및 경력) 0명

2.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 주부사원(만35세이하)

3. 급 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경력자 면접 후 결정

4.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기숙사 제공, 1일 3식 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등

5.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면접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충원시까지(충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7. 접수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담 당 : 식음료팀 이상욱 팀장
– 전 화 : 061-320-7799
– 이메일 : guy0818@hanmail.net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중-4738호